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Mediation by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Hyung-Hee Kim*, Jin-Sook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Korea

**Professor,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ffect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Using data from 1,076 students in the ninth wave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1st cohor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analyses were perform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positively influence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which in turn affected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s.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was not significant, confirming that their influence operates mainly through psychological resource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ostering positive teacher-student interactions and enhancing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to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Self-esteem, Achievement motivation, Mediation effect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1기 9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총 1,076명이며, 기술통계, 상관분석, 확인적 요인분석(CFA), 구조방정식모형(SEM),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두 변인은 각각 진로태도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와 진로태도결정성 간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통한 간접효과는 검증되었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직접적 영향보다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과 자아존중감·성취동기 증진 지원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교사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진로태도결정성, 매개효과

• First Author: Hyung-Hee Kim, Corresponding Author: Jin-Sook Kim

*Hyung-Hee Kim (kimhh@ghu.ac.kr),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Jin-Sook Kim (kjs324@hanmail.net),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Chosun University

• Received: 2025. 09. 09, Revised: 2025. 11. 01, Accepted: 2025. 11. 03.

I. Introduction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장래의 진로를 탐색·결정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이며, 이 시기의 진로태도는 성인기의 직업 선택과 사회적 적응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1]. 이러한 발달적 특성 속에서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학업 성취, 사회성 발달, 심리적 안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를 넘어 정서적 지지자이자 진로 지도자로서 학습 동기와 자기개념 형성을 촉진하고 학생의 내적 심리자원을 강화하여 진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2].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언어·문화·가정환경의 차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사회 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진로 발달 과정에서도 취약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3]. 따라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사의 정서적·관계적 지지는 학생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도록 돕고, 목표를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동기를 높인다. 이러한 심리적 자원이 강화되면 진로 탐색과 선택에 대한 확신(진로태도결정성)도 함께 높아진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언어·문화 전이와 편견·차별 경험 등으로 심리적 자원이 취약해지기 쉬우므로, 교사의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진로태도 결정성에는 사회적 관계뿐 아니라 심리적 요인도 핵심적으로 작용한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진로 탐색과 목표 설정을 촉진하며[4], 성취동기는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의 지속성과 강도를 결정함으로써 진로 발달에 기여한다[5]. 따라서 교사와의 관계가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 전략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다시 진로태도결정성을 향상시키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교사의 지지가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효과가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로 작동하는지(완전 매개 가능성 포함)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나아가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문화 전이, 차별·편견 경험, 부모 출신국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학교 소속감과 심리적 자원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교사지지를 발달적 보호요인으로 개념화하고, 교사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하여 진로태도결정성을 강화

하는 완충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최근 연구에서도 교사지지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가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지를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거나, 진로태도결정성보다는 학교적응 및 사회적 철회(social withdrawal)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사지지를 핵심 사회적 지지 요인으로 구체화하여, 심리적 요인(자아존중감·성취동기)을 매개로 진로태도결정성에 이르는 구조적 경로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팬데믹 이전 시점(2019년)의 안정된 학교 맥락에서 이루어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이후 시기의 환경적 교란 없이 교사-학생 관계의 보호효과를 명확히 규명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elated works

1.1 Teacher-Student Relationship

교사는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학업 지도뿐만 아니라 정서적·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중요한 성인 역할 모델이다 [2].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교 적응을 촉진하며, 학습 동기와 자기개념 형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된다[6].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사는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완화하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7]. 또한 교사와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는 진로 준비 행동과 목표 설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8].

1.2 Self-Esteem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4],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학업 성취, 대인 관계, 진로 발달 등 다양한 발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이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신감과 도전 의식을 강화하고[9], 의사결정 상황에서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자아존중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적 한계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교사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이러한 심리적 취약성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1.3 Achievement Motivation

성취동기는 개인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도록 이끄는 내적·외적 요인을 의미하며, 학업성취와 진로 행동의 핵심적인 심리적 기반으로 작용한다[5]. 높은 성취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진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습과 경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11].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은 학생의 성취동기를 촉진하며, 이는 진로태도결정성 향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2].

1.4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진로태도결정성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 목표에 대해 가지는 명확성과 선택에 대한 확신의 정도를 의미한다[15]. 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은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족, 교사, 또래 등 환경적 요인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14].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진로태도결정성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며, 사회적 지지(특히 교사와의 관계)는 이러한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진로태도결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1.5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교사와의 관계는 청소년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정서적·사회적 지지 자원으로 작용하며, 학생의 심리적 특성과 진로 발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자기 가치감을 높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며[6], 이러한 심리적 자원은 진로 탐색과 선택 과정에서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주도적인 태도를 촉진한다[10].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교사의 이해와 지지는 문화적·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 및 사회적 적응을 돕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된다[8].

또한, 교사와의 신뢰롭고 지지적인 관계는 성취동기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사의 격려와 피드백은 학생이 학업 및 진로 관련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며[11], 이러한 과정은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강화하여 성취동기를 고양시킨다[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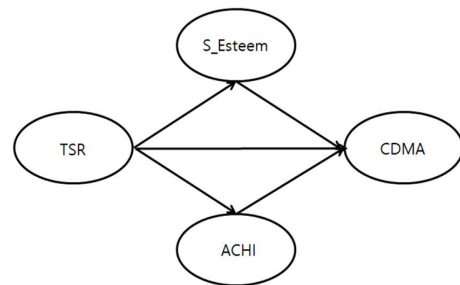
더 나아가 교사와의 관계에서 강화되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모두 진로태도결정성의 핵심적 예측 요인으로 밝혀졌다. 높은 자아존중감은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목표 달성 의지를 높이고[13], 성취동기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진한다[5]. 특히 최근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8].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12]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교사와의 관계가 심리적 자원을 강화하여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가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사-학생 관계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진로 발달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진로태도결정성을 예측하는 핵심 심리적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동향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를 독립변수로, 진로태도결정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변수로 포함한 매개모형을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TSR: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_Esteem: Self_Esteem
 ACHI: Achievement Motivation
 CDMA: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Hypotheses

H1.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교사와의 관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3. Analytical Data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1기 9차(2019) 자료[15]를 활용하였으며, 설문 문항에 성실하게 응답한 1,076명을 최종 분석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확인적 요인분석(CFA)과 구조방정식모형(SEM)에서 통상 제시되는 표본 기준을 충족하여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으로 판단된다[18]. MAPS 1기 9차 자료는 전국 단위의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표집된 종단조사로, 학교·가정·지역사회 요인에 대한 문항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 중 학교 맥락과 심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주요 변인을 추출하였다. 9차 자료는 중학교 3학년의 종단 최종 시점을 포착하고 있어, 진로태도결정성이 구체화되는 발달 단계를 적절히 반영한다. 또한 2019년 자료는 코로나19 이전의 학교 맥락에서 수집되어 팬데믹에 따른 교사-학생 상호작용의 교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 한편 MAPS 2기(2020~)에도 유사 문항이 존재하나, 팬데믹 및 코호트 효과로 응답 분포와 공분산 구조가 상이할 수 있어 측정불변성(구성·계량·절편) 검증 없이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동일한 발달 단계와 학교 맥락을 전제로 한 단일 시점(2019) 분석을 통해 변수 간 구조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정하였으며, 일반화 범위는 해당 시점·코호트로 한정한다. 이를 통해 팬데믹 이후 학교 환경 변화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외생적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2019년 자료 활용은 연구 타당성 측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4. Data Analysis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I) MAPS 1기 9차년도 원자료(raw data)를 사용하였다. 결측 및 불성실 응답을 제외한 1,076명을 유효 표본으로 확정하였으며, 분석은 무가중치로 수행하였다. 가중치 적용 여부에 대한 사전 민감도 점검에서 기술통계, 상관계수 및 주요 SEM 경로계수 변동이 경미하여 본문에는 무가중 결과를 보고하였다. 핵심 변수는 동일 시점에 측정되었으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교사 지지(정서적 지지 중심 3문항), 자아존중감(5문항), 성취동기(7문항), 진로태도결정성(4문항). 모든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내적 일관성(Cronbach's $\alpha = 0.824\sim 0.879$)이 확보되었다. 각 변수의 척도는 선행연구에

서 검증된 문항을 기반으로 구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도 단일 요인구조가 확인되어 측정타당성이 확보되었다. 변수 간 기초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적용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자아존중감 및 성취동기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동시에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각 매개경로의 효과 크기와 유의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팬텀변수 기법을 추가로 적용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 1,076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532명(49.4%), 여학생 544명(50.6%)으로 분포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480명(4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읍·면 지역 332명(30.9%), 대도시 264명(24.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4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문대학 졸업(25.8%), 대학교 졸업(15.3%), 중학교 졸업 이하(11.2%)순이었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은 0.5%에 불과했다. 아버지의 학력 또한 고등학교 졸업이 51.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31.7%로 뒤를 이었으며, 대학교 졸업(9.9%), 전문대 졸업(6.1%), 대학원 졸업 이상(0.8%)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보통이다'가 45.7%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다'(39.2%), '아주 어렵다'(12.2%), '잘 산다'(2.7%), '아주 잘 산다'(0.2%)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Technical Statistics and Correlation of survey subjects

주요변수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계수는 [Table 2]와 같다. 교사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r=0.418, p<0.01$), 성취동기($r=0.422, p<0.01$), 진로태도결정성($r=0.268, p<0.01$)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r=0.478, p<0.01$) 및 진로태도결정성($r=0.392, p<0.01$)과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성취동기는 진로태도결정성($r=0.405, p<0.01$)과 각각 유의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 변인 간 밀접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rvey subjects

category	item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532	49.4
	female	544	50.6
age group	Metro area	264	24.5
	Mid-sized city	480	44.6
	Rural Area	332	30.9
pedu_1 *	Middle or Below	120	11.2
	High School	508	47.2
	Associate Degree	278	25.8
	Bachelor's Degree	165	15.3
	Graduate Degree	5	0.5
pedu_2 **	Middle or Below	341	31.7
	High School	553	51.4
	Associate Degree	66	6.1
	Bachelor's Degree	107	9.9
	Graduate Degree	9	0.8
income	very poor	131	12.2
	poor	422	39.2
	average	492	45.7
	well-off	29	2.7
	very Well-off	2	0.2

*: Mother's Educational Attainment
 **: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각 변수의 평균(M)과 표준편차(SD)는 다음과 같다. 교사와의 관계(M=3.914, SD=0.790), 자아존중감(M=3.828, SD=0.666), 성취동기(M=3.095, SD=0.458), 진로태도결정성(M=2.846, SD=0.659)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 값은 모두 절댓값 2 이내로 정상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는 0.824 ~ 0.879 범위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높은 내적일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뢰도 계수가 0.70 이상이면 수용 가능하다는 기준 [16]에 근거할 때 본 연구의 측정 도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Study Variables

(n=1,076)

	(1)	(2)	(3)	(4)
TSR(1)	1			
S_Esteem(2)	0.418**	1		
ACHI(3)	0.422**	0.478**	1	
CDMA(4)	0.268**	0.392**	0.405**	1
M	3.9145	3.8287	3.0950	2.8462
SD	0.7905	0.6663	0.4582	0.6592
Skew	-0.744	-0.221	0.086	-0.095
Kurt	1.118	0.123	0.568	-0.236
Cronbach's α	0.879	0.879	0.878	0.824

** : p<.01
 TSR: Teacher-Student Relationship
 S_Esteem: Self-Esteem
 ACHI: Achievement Motivation
 CDMA: Career Decision-Making Attitud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Figure 2]와 같이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초기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2077.873$ ($p<0.001$), CMIN/DF=8.447, IFI=0.854, TLI=0.836, CFI=0.854, RMSEA=0.083으로 나타나, 일부 지수가 권장 기준(IFI, CFI, TLI \geq 0.90; RMSEA \leq 0.08)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모형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참고하여 이론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측정변수 간 일부 오차항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최종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62.252$ ($p<0.001$), CMIN/DF=7.035, IFI=0.934, TLI=0.922, CFI=0.934, RMSEA=0.068로 나타났으며, 모든 지수가 권장 수준을 충족하거나 근접하였다. 따라서 최종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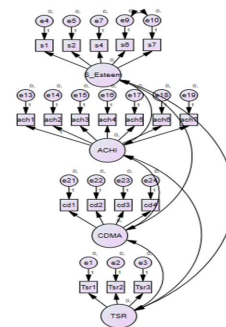


Fig. 2. Measurement Model

Table 3. CFA Goodness-of-Fit Indices

	initial	final
χ^2/p	2077.873***	862.252***
CMIN/DF	8.447	7.035
IFI	0.854	0.934
TLI	0.836	0.922
CFI	0.854	0.934
RMSEA	0.083	0.068

*: p<0.05, **: p<0.01, ***: p<0.001

4. Path Coefficients, 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and Construct Reliability (CR) between Latent and Measurement Variables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경로계수 및 타당도 분석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화 요인부하량(β)은 0.637~0.905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런 결과는 각 측정변수가 해

Table 4. Path Coefficients between Latent and Measurement Variables

Variable		B	β	S.E.	C.R.	AVE	CR
TSR	Tsr1	1	0.769			0.717	0.904
	Tsr2	1.029	0.905	0.034	30.199		
	Tsr3	1.077	0.862	0.037	29.368		
S_Esteem	s1	1	0.831			0.596	0.914
	s2	1.064	0.792	0.036	29.858		
	s4	0.912	0.829	0.039	23.648		
	s6	0.954	0.716	0.038	24.838		
	s7	0.988	0.723	0.039	25.156		
ACHI	ach1	1	0.700			0.514	0.950
	ach2	1.147	0.790	0.049	23.652		
	ach3	1.040	0.749	0.046	22.543		
	ach4	1.065	0.637	0.055	19.351		
	ach5	1.114	0.736	0.050	22.187		
	ach6	1.007	0.665	0.050	20.163		
	ach7	1.109	0.732	0.050	22.055		
CDMA	cd1	1	0.702			0.545	0.877
	cd2	1.111	0.839	0.049	22.906		
	cd3	0.830	0.668	0.043	19.389		
	cd4	1.111	0.736	0.053	21.080		

당 잠재변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렴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과 구성개념 신뢰도(CR)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분산추출(AVE) 값은 교사와의 관계(TSR) 0.717, 자아존중감(S_Esteem) 0.596, 성취동기(ACHI) 0.514, 진로태도결정성(CDMA) 0.545로 모두 0.50 이상을 충족하여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17]. 또한 구성개념 신뢰도(CR) 값은 교사와의 관계 0.904, 자아존중감 0.914, 성취동기 0.950, 진로태도결정성 0.877로, 모든 값이 0.70 이상을 상회하여 각 잠재변수가 우수한 내적 일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6].

5. Structural Model Analysis

5.1 Structural Model Goodness-of-Fit Testing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Figure 3]과 같이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62.252(p<0.001)$, CMIN/DF=5.947, IFI=0.934, TLI=0.922, CFI=0.934, RMSEA=0.068로 나타났다. 표본 수가 많을 경우 χ^2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른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8]. 본 연구에서는 보고된 모든 지수가 권장 기준(IFI, CFI, TLI \geq 0.90; RMSEA \leq 0.08)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Structural Model Goodness-of-Fit Indices

	χ^2/p	CMIN /DF	IFI	TLI	CFI	RMSEA
Model Fit	862.252***	5.947	0.934	0.922	0.934	0.068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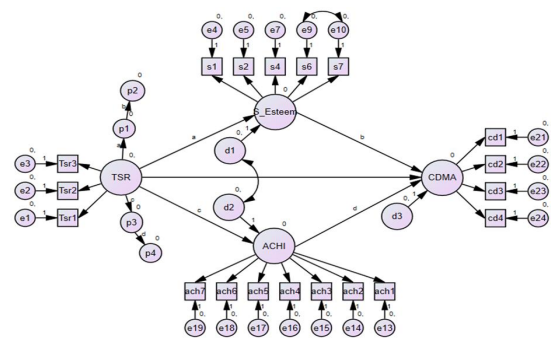


Fig. 3. Proposed Structural Mode

또한 연구모형에 제시된 다섯 개의 직접 경로 가운데, 교사와의 관계에서 진로태도결정성으로의 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사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beta=0.487, p<0.001$)과 성취동기($\beta=0.488, p<0.001$)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진로태도결정성($\beta=0.178, p<0.001$)에, 성취동기는 진로태도결정성($\beta=0.330,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진로태도결정성으로의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 “교사와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관계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세부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한편, 각 경로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가 성취동기($\beta=0.488$)와 자아존중감($\beta=0.487$)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 자아존중감($\beta=0.179$)과 성취동기($\beta=0.330$)는 진로태도결정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beta=0.061$, C.R.=1.544),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은 주로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경로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방정식모형(SEM)의 경로계수는 AMOS 21.0에서 최대우도법(ML)으로 추정하였다. 표에는 표준화 추정치(β), 표준오차(S.E.), 그리고 임계비(C.R. = Estimate / S.E.)를 제시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ias-corrected 부트스트래핑(2,000 재표집, 95% 신뢰구간)으로 추가 검증하였다.

Table 6.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Model

path		β	S.E.	C.R.
TSR	→ S_Esteem	0.487	0.031	14.015***
TSR	→ ACHI	0.488	0.021	13.348***
S_Esteem	→ CDMA	0.179	0.041	4.056***
ACHI	→ CDMA	0.330	0.065	7.239***
TSR	→ CDMA	0.061	0.032	1.544

*: $p < .05$, **: $p < .01$, ***: $p < .001$

[Table 6]의 결과에 따르면 교사와의 관계(TSR)는 자아존중감(S_Esteem)과 성취동기(ACHI)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eta=.487$, $p < .001$; $\beta=.488$, $p < .001$), 교사지가 두 요인을 각각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_Esteem→CDMA($\beta=.179$, $p < .001$)와 ACHI→CDMA($\beta=.330$, $p < .001$)도 유의하여, TSR의 효과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5.2 Results of Multiple Mediation effect Analysis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이르는 간접효과는 $B=0.072$, 95% CI=[0.040, 0.106]으로 나타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교사와의 관계가 성취동기를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B=0.133$, 95% CI=[0.099, 0.170]으로,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7. Multiple Mediation effect Analysis

Indirect Path	B	S.E.	95% CI	
			Lower	Upper
TSR→ S_Esteem →CDMA	0.072	0.020	0.040	0.106
TSR→ ACHI →CDMA	0.133	0.022	0.099	0.170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와의 관계가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교사와의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에 모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두 변인은 각각 진로태도결정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에서 진로태도결정성으로의 직접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라는 심리적 요인을 매개로만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다중 매개효과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재확인되었으며, 직접효과의 비유의성 역시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학생 관계의 정서적 지지가 심리적 자원 강화를 통해 학업-적응 및 진로 관련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2][6][8]의 설명과 맥락을 같이하며, 성취동기의 상대적 영향이 크다는 점은 목표지향적 행동 경로를 강조한 논의[12]와도 일치한다. 동시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교사-학생 관계의 직접효과나 단일 매개(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둔 것과 달리,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두 매개 변수를 동일 모형 내에서 동시 추정함으로써 상대효과를 분해하였다. 또한 팬데믹 이전 (2019) 안정된 학교 맥락에서 완전매개 구조를 검증함으로써, 이후 시기의 연구들과 시기적-맥락적 차별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가진다. 특히 다문화청소년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CFA-SEM과 팬텀변수 부트스트래핑을 병행하여 성취동기 경로의 우세성을 검증한 것은 기존 연

구와 구별되는 방법론적 차별성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두 매개 변인을 동일 모형에서 동시 추정함으로써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를 분해하였고, 그중 성취동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목표지향적 행동을 강화하는 심리적 경로를 통해 진로태도결정성을 높인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언어·문화 전이와 차별·편견 경험 등으로 학교소속감과 심리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기 쉽다. 본 연구의 완전 매개 결과는, 교사의 정서적·관계적 지지가 직접효과보다 심리자원 강화를 경유한 간접효과로 진로태도결정성을 높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첫째, 관심·인정·정서적 피드백을 중심으로 한 관계 기반 지원을 체계화하고, 둘째, 목표 설정-과정 피드백-멘토링으로 구성된 동기 증진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셋째, 필요 시 다언어 상담 및 학부모 연계를 포함한 문화응답적 지원을 결합하는 통합 개입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단일 시점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인과적 해석에 제약이 따른다. 둘째, 측정 변수가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반하고 있어 응답자의 주관적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찰 지표 및 질적 자료를 병행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 메커니즘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Company, 1968.
- [2] B. K. Hamre and R. C. Pianta,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2, pp. 625-638, 2001. <https://doi.org/10.1111/1467-8624.00301>
- [3] J. E. Kim, "Career barrier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Social Scienc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Vol. 31, No. 3, pp. 21-37, 2020. <https://doi.org/10.16881/jss.2020.07.31.3.21>
- [4] M. Rosenberg,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
- [5] D. C. McClelland, *Human Motivation*, Scott, Foresman, 1985.
- [6] J. A. Baker, "Contributions of teacher-child relationships to positive school adjustment during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 44, No. 3, pp. 211-229, 2006. <https://doi.org/10.1016/j.jsp.2006.02.002>
- [7] G. Gay, *Culturally responsive teach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Teachers College Press, 2018.
- [8] S. S. Lee, and K. H. Lee,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teacher relationships, satisfaction with career education activities,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of high school students," *Education and Learning: Global Creative Leader*, Vol. 10, No. 3, pp. 53-77, 2020. <https://doi.org/10.34226/gcl.2020.10.3.53>
- [9] C. J. Mruk, *Self-esteem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positive psychology of self-esteem* (3rd ed.).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6.
- [10] P. S. Chu, D. A. Saucier, & E. Hafner, "Meta-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upport and well-be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29, No. 6, pp. 624-645, 2010. <https://doi.org/10.1521/jscp.2010.29.6.624>
- [11] D. H. Schunk, P. R. Pintrich, and J. L. Meece,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International ed.). Pearson Education, 2010.
- [12] S. H. Yu, and C. Choe, "The traject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in middle-school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Youth Welfare*, Vol. 22, No. 3, pp. 101-128, 2020. <https://doi.org/10.19034/KAYW.2020.22.3.04>
- [13] M. L. Savickas, "The theory and practice of career construction," in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S. D. Brown and R. W. Lent, Ed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pp. 42-70, 2005.
- [14]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D. Brown and L. Brooks, Ed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p. 197-261, 1990.
- [15]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Wave 9, First cohort [Data se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19. <https://www.nypi.re.kr>
- [16] J. C. Nunnally,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1994.
- [17]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https://doi.org/10.1177/002224378101800104>.
- [18]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6.

Authors



Hyung-Hee Kim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22.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youth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etc.



Jin-Sook Kim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Korea, in 2007.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Welfare, Chosun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child welfare, family welfare, addiction studies, and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etc.